



물과 인간

물이 갖는 존엄성과 철학 및 생활속에서의 귀중성을 소개한다.

유성종

수원과학기술대학교 건축설비과(sjyu@mail.suwon-sc.ac.kr)

물과 생명

물의 탄생 - 최초의 물방울

지구상 최초의 물은 지금으로부터 약 40억년 전에 탄생되었다는 학설이 유력하다. 약 46억년 전에 태양을 감싸고 있던 가스구름에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별들이 태어났고, 최초의 지구는 뜨거운 가스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스체의 매우 작은 입자들은 서로 당기고 부딪치는 과정 중에 점점 큰 입자로 성장하고, 성장된 수많은 입자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부딪치면서 생긴 고온의 열반응에 의해 용융되었다. 이와 같이 용융된 상태에서 중량이 큰 물질들이 중심 핵이 되고 암석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물질들은 지표층이 되어 굳어지면서 둥근 모양의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구 내부는 가스의 지속적인 반응으로 고온을 유지하면서 지구의 갈라진 틈이나 여기저기서 일어난 화산폭발과 더불어 배출되는 기체들이 새로운 대기권을 형성하였다. 이 대기는 수소가스, 암모니아가스, 메탄가스 및 대부분의 수증기로 이루어졌으며, 식어진 대기권속에서 응결되어 지구는 수증기의 두꺼운 구름으로 계속해서 뒤덮이게 되었다. 수증기들이 점점 크게 뭉쳐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자 비가 되어 수 백년간 끊임없이 내리게 되었다. 지구표면이 식어가면서 단단한 층이 이루어졌고 표면의 들어간 부분에 물이 채워지면서 태초의 바다가 생겨났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화산폭발과 지각의 변동으로 산의 형태를 갖추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대륙이 형성되는 등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되었다.

물과 생명 - 물은 생명을 만든 어머니

태초에 바다가 만들어지는 동안 여러 가지 원소들이 특별한 반응과 변화를 거쳐 생명체의 바탕이 되는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이 유기물들이 진화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35억년 전경에 최초의 단순 생명체가 탄생되었다고 한다. 이 최초의 생명체들이 서로 분화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점점 더 복잡한 생명체가 생겨났고, 결국 이들 생명체중에서 어떤 생물들은 오랜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다. 육지에 올라온 생명체들은 진화를 계속 하면서 결국 인류도 탄생되었다고 한다. 태초에 바다에 물이 없었다면 현재의 생명체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태초에 생명체를 잉태한 모체가 바로 물이며, 지금도 모든 생명체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자궁이요 젖이 물인 것이다.

인류문명의 발상

인류문명의 역사는 물과의 투쟁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의 범람과 극심한 가뭄이라는 자연조건에 대응하여 인류는 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는 응전의 과정을 통하여 문명을 발달시켜 왔다. 큰 강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삶의 터전이 되어 왔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되었던 곳도 모두 큰 강 유역이었다.

4대 문명발상지라고 일컬어지는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 인도 북부의 인더스강과 갠지스강 유역 및 중국의 황하유역에서는 인류가 정착하여 농경활동이 시작되며 고대문명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들 유역의 비옥한 땅에서는 농경·무역이 이루어지고, 민족의



이동과 전쟁 및 정복 등으로 문화권이 형성되었으니 이를 고대 오리엔트문명이라고 부른다. 이 오리엔트 문화는 물의 사회적 제어 즉 치수(治水)와 관개(灌溉)를 위한 통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고대 전체국가 발생되었다.

물과 철학

상선약수

上善若水(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 문구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유명한 명구로서 많은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노자는 물을 통하여, 물의 성질과 운동을 통하여 도(道)를 설명하고 있다. 도는 보이지 않으나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가장 도에 가까운 것이 바로 물이라고 하였다.

첫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水善利萬物). 물은 가는 곳마다 모두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 물이 없으면 만물은 고사(枯死)해버린다. 그러나 물이 흐르게 되면 어느 곳이나 비록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다시 생명이 소생한다. 모든 생명에게 활력을 준다. 물처럼 모든 것을 이롭게 하는 것이 또 어디에 있으랴! 사막에서의 오아시스처럼, 갈증을 느낄 때 물 한 방울처럼 우리에게 고마움을 주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물은 바로 생명 그 자체요, 생명을 주는 어머니요, 신(神)이다.

둘째, 물은 자신을 낮춘다. 곧 자기를 비하(卑下)시킬 줄 아는 것이다. 비하시킨다 함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한다는 것이다(處衆人之所惡).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 더러운 수채구멍의 시궁창까지도 간다. 비천한 곳, 억압받는 곳, 피지배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 노자의 백성들에 대한 정치철학의 근본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처한다는 것은 가장 약한 존재임을 뜻하기도 한다. 가장 약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힘에 대처할 수가 있다. 물 앞에는 당할 것이 없다. 다수이기에 쉬지 않고 흐를 수가 있으며,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다. 한 방울의 낙수가 단단한 댕들을 뚫을 수가 있다.

셋째, 물은 다투지 않는다(不爭). 물은 자신을 낮추며 흐르다가 암석을 만나도 암석과 다투지 않고 암석

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비켜 지나간다. 여기서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마땅히 다투어야 할 일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도피주의나 투항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천한다는 뜻이다. 다투는 것은 어쨌든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순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일이나 행동에 무리가 따르는 경우를 다투다고 한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못되는 것을 노자는 쟁(爭)이라 하고 있다.

넷째, 물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한다(平衡作用). 물은 지나가면서 높은 것을 깎아 내고 낮은 것을 돋아준다(損有餘而補不足). 물은 평형의 상징이다. 물은 어느 곳 어느 상태에서든지 수평을 지향한다. 수평의 지향이 곧 물의 활동과정이다. 노자는 이러한 물의 의미를 사회적 평등과 결부시켰다. 사회적 평등의 개념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정신적 가치에도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물의 평등은 단순한 계급적 획일주의나 노동가치의 분배의 평등을 초월하는 평등인 것이다. 이는 구체적 이론이기보다는 생활하면서 느끼는 모든 가치의 포괄적인 평등의 체계이다.

물이 도에 가깝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이요, 다투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고 모든 것을 이롭게 성취시키기 때문이리라. 우리의 삶도 남에게 이로움을 주며, 오히려 자기보다 자신을 낮출 줄을 아는, 다툼이 없이 자기의 삶을 성취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이 갖는 네 가지 덕(水有四德)

인간의 본성은 물 흐름과 같다고 한다. 흐름의 길을 동쪽으로 트면 동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로 흐른다. 이처럼 사람도 가르침이나 습관에 따라 옳은 쪽이거나 또는 옳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물은 우리 삶의 본보기가 되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예로부터 물에서 가르침을 얻으려 했다.

『시자』(尸子)의 군치(君治)편에는 물의 속성으로부터 인간이 갖추어야 할 4가지 덕목을 기술하고 있다. “물에는 네가지 덕(德)이 있으니 첫째는 땅위의 모든 자연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만물을 통하여 흐르게 하니 인(仁)이며, 맑은 것을 추구하고 탁한 것



을 꺼리며 찌꺼기와 더러운 것을 쓸어버리니 의(義)요, 부드러우나 범하기 어렵고 약하지만 강한 것을 이기니 용(勇)이며, 낮은 곳으로 흘러 강으로 나아가기에 나쁜 것을 포용하고 있으나 그 흐름이 겸손하지(智)이다.” 물을 동양의 전통적 덕목인 『인·의·용·지』를 품고 있는 도의 본체로 승화하고 있다.

물의 교훈

물은 노자의 “상선약수”편이나 시자의 “수유사덕”편에서 열거한 덕성 이외에, 인간에게 많은 철학과 가르침을 주고 있다.

-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
-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거대한 바다를 이룬다.
- 물은 지형을 닮으며 굽이굽이 흐른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되 사소한 것은 타협하며 융통성을 갖는다. 또한 물길을 바꾸지 않으나 옆에 있는 작은 도랑도 채우며 흐르는 아량을 갖는다.
- 물은 너무 많으면 홍수가 나고 너무 작으면 가뭄이 된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분수를 지키며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자.
- 흐르는 물은 맑으나 고인 물은 썩는다. 게으름이나 나태는 자기도 썩고 남도 썩힌다. 부지런하고 근면한 삶은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 물은 남을 씻겨주는 능동체이다.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깨끗이 씻어주며 오염을 제거해주고 정화작용을 하면서 언제나 맑은 기운으로 끊임없이 흐른다.
- 물은 둥글게 하고자 하면 둥글게 할 수 있고, 모나게 하고자 하면 모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의 힘을 가해서 모양이 변한 뒤에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한다.

물과 생활

생활공간에서의 물

물과 관련된 공간 즉 수변공간은 양의 동서나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정서와 생활환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대 로마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으

로는 곳곳에서 솟구치는 분수가 연상된다. 고대도시는 물론 현대도시의 미관형성이나 생활환경의 구성에서 물이 관련된 공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도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물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추구하는 슬기를 가졌다. 전통주택에서의 생활용수와 정서공간 구성으로서의 우물과 연못은, 법도와 생활풍습 및 자연순리에 따라 이루어졌다. 홍만선은 「산림경제」에서 “집터에서 왼쪽으로 물이 흐르면 청룡이라 하고 오른쪽으로 긴 도로가 있으면 백호라 하며, 앞에 연못이 있으면 주작이라 하고 뒤에 구름이 있으면 현무라 하여 이 조건이 구비된 곳이 제일 좋은 집터”라고 하였다. 왼편에 물이 흐르고 앞쪽에 연못이 있으면 집터 조건은 물론 생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나아가 물과 주택과의 관계, 우물의 위치선정에서 자연성 및 주택형식도 고려함은 물론, 자연과 인간과의 음양해석적 조화로서 주거환경도 고려하였다. 자연 그대로의 형이상학적 조건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조성하였다. 인공적 조성에서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이 물 공간으로서, 경주의 안압지, 경북공의 경회루, 창덕궁의 비원에 있는 부용지, 남원의 광한루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강이나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하천이나 강은 도심 속에서 귀중한 자연환경으로서의 수변공간이다. 그 동안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수변환경은 악화일로를 거쳐왔다. 수질의 악화, 수변공간의 폐쇄, 공해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었다. 최근에 환경의식의 변화로 시민들이 수변공간을 활용하고 친수성을 갖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소나마 노력하고 있어서 다행한 일이다. 도시 하천의 수변공간 뿐 만 아니라 모든 수변공간이 풍요롭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재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에서의 물의 의미

물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독특한 상징과 의미를 지닌다. 기독교는 물로 죄를 씻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의식을 통해 물이 지닌 신학적, 성서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성서 안에서 물은 다양한 의



미를 드러내지만 3가지로 요약된다. 생명수로서의 물, 죽음과 단죄로서의 물, 그리고 정화수로서의 물이다. 첫째로 물은 생명의 기원이 된다. 천지창조 때부터 창조된 물은 모든 생물의 다산과 풍요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둘째 물은 죽음과 단죄의 상징이다. 노아의 홍수에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물은 종교적으로 죄를 씻어내는 정화의 의미로 심화되었다. 여기서 정화란 재창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불교에서도 물은 속죄를 씻어주고 고통을 없애주는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다. 법당에 모셔진 관음보살이나 미륵보살, 제석천 등의 부처님은 정병(淨瓶)을 들고 있다. 정병이란 물을 담은 그릇으로, 물 가운데서도 가장 깨끗한 물인 감로수(甘露水)를 담은 병이다. 감로수는 중생들의 고통이나 목마름을 없애주는 물을 말한다. 또한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불국토라고 한다. "불국토에는 목욕할 수 있는 호수가 수없이 많이 있고, 그 호수에는 여덟가지 행복과 영험을 갖춘 물이 철철 넘치고 맑은 향기가 풍겨 마치 감로수와 같은 느낌이다.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환희에 넘쳐 마음의 때가 말끔히 씻긴다."라고 「무량수경」에서 설명하고 있다.

힌두교도들 사이에서는 갠지스강물에서 목욕재계 하면 모든 죄를 면할 수가 있으며, 죽은 후에 이 강물에 뺨가루를 흘려 보내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로부터 첫새벽에 길은 우물물을 정화수라 하여 재앙을 쫓아내거나 복을 기원하는 신령의 상징이라고 보았다. 민속제사 중 용왕제는 물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경배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물과 풍수지리

풍수지리란 자연현상을 인간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분야다. 땅의 변화 현상을 이해하여 명당 길지를 찾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짓거나 조상의 유골을 편안하게 모셔 땅의 기운에 의해서 거주자와 자손의 부귀영달과 행복을 꾀하고 있다. 또한 국토 이용의 합리성·보존성·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자연과 조화된 균형 있는 국토개발로 인간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도 한다.

개인이나 가문이 자연의 정기를 어느 정도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길·흉이 결정된다는 자연정기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물이 땅 속을 흘러 움직이는 생명의 흐름인 것처럼, 땅의 생기(生氣)는 땅속을 흐르면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자연을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 보는 것이다. 정기(精氣)에는 길기와 흉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의 길흉화복도 자연정기에 어느 정도 감응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풍수지리는 인간의 모든 거처를 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택지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운을 생각해서 나라의 도읍자리를 정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국민의 복지와 행정을 다루는 공공청사의 위치를 아무 데나 정할 수 없다는 왕도풍수설, 집을 지을 때 부귀와 건강을 위하여 터를 정하는 양택풍수설, 조상의 유택을 모실 곳을 정하는 음택풍수설로 구분된다.

풍수설의 근간요소로 첫째는 산이고 둘째는 물이며 셋째는 바람을 막는 장풍법 넷째는 길지를 택하는 정혈법을 든다. 물은 천지의 생기가 생동·유전하는 모습으로써, 지표를 흘러서 냇물이 되고 지하를 통하는 지하수가 되어 땅의 기운을 운반한다. 물은 생기를 발하는 근원이며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기가 있다고 본다.

물과 건강

최근 '물의 건강학'이 관심을 끌고 있다.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서, 좋은 물은 건강을 지켜주고 질병을 예방해주며 젊음을 유지시켜 주는데 효과가 있다. 물은 체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무심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인체에 필요한 물의 양

성장이 정지된 성인의 신체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10세의 어린이는 85%이며, 노인의 경우는 50% 이하로 떨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수분이 줄어든다. 체내의 물을 1~2%만 잃어도 심한 갈증을 느끼며, 5%정도 잃으면 탈수상태로 되



고, 12%를 잃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2.75ℓ 정도라고 한다. 약 1.5ℓ는 음료수로, 약 1ℓ는 음식물에 의해, 약 0.5ℓ는 다른 식품에서 신진대사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인체에서의 물의 기능

- 체내로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세척 및 해독기능을 한다. 물을 수시로 절절하게 마시면 체내의 모든 기관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몸 속의 노폐물을 쉽게 배출하게 되므로 몸 속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독소들이 배설되지 않고 몸 속으로 흡수된다면 두통, 피로, 통증, 거친 피부, 만성질환 및 암의 원인이 된다. 적절한 양의 좋은 물은 독소를 잘 배설시켜 신체를 정화시켜준다.
- 땀을 통하여 체온조절을 한다. 사람은 항온동물로서 신체의 열 생산과 방출은 균형이 잘 맞게 조절되어 있다. 물은 적절한 체온을 조절하는데 기여할 뿐 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도와 뇌졸중 예방과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을 준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발암물질이 희석되는 것은 물론 방광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 음식의 소화작용을 돕는다. 물은 소화액의 구성요소 뿐 만 아니라 운반체로도 사용되고 있다.
-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으면 물의 쿠션역할에 의해 갑작스런 충격을 흡수한다.
- 율활작용을 한다. 모든 관절마다 관절액이 존재하여 율활작용을 하며 신경자극의 전달을 율활하게 한다. 또한 혈전예방기능을 한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경색과 심장질환을 일으켜 혈전이 생기기 쉽다. 충분한 수분섭취는 혈전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한다.

좋은 물

인간은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욕망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났다. 그래서 음료수로서 약수를 찾고 수도물대신에 생수나 미네럴워터를 먹고 있다.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고대 이집트의 요셉우물은 암반중에 깊이 90m를 판 것이고, 고대 우

물중에 제일 깊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 있는 우물은 깊이 500m나 되는 것도 있다.

세계에서 1백세 이상의 장수노인이 많기로 유명한 지방은 네팔 북쪽 티베트 근처의 훈자, 구 소련연방 코카서스의 압하지아, 중미 에콰도르의 발카밤바 등 세 곳을 들고 있다. 학자들의 연구결과 그들이 먹는 음식물은 아주 보잘것 없었으나, 고산지대의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장수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날마다 마시는 물의 영향이 큰 것으로 증명되었다.

좋은 물에 대한 판단은 첫째 병원균 등 인체에 해로운 요소가 없어야 하고, 둘째 연중 수온의 변화가 없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셋째 탄산가스·산소·철분·칼슘 등의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성분에 따라 독특한 맛을 내고, 넷째 녹아있는 성분이 약리적 작용을 하여 질병에 대한 치료가 있거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물을 말한다.

맛있는 물은 일반적으로 수온이 10~15℃ 정도이고, 물의 경도가 50mg/ℓ 정도, 알칼리성은 pH7.5 정도로서 산소와 탄산가스가 충분히 녹아있는 물이다.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법

물은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는 만큼 마시면 된다. 많은 의사나 학자들은 깨끗한 물을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마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구 박사는 아침의 물 두 잔은 최상의 보약이라고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했고, 홍문화 박사는 아침, 점심, 저녁의 공복시에 3회에 걸쳐 3분 동안 조금씩 천천히 마시기를 권장하고 있다. 일본의 오까다 박사는 그의 저서 “물의 맛에 서” 물마시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 아침에 일어나면 2~3컵의 생수를 마신다.
- 하루동안 모두 10컵(1ℓ)의 물을 마신다.
- 병이 나면 약을 먹기 전에 먼저 물을 마신다.
- 깨끗하고 순수한 물을 마신다.
- 홀짝홀짝 자주 마신다.

선조들의 물이야기

물 감별법

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 가득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고대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금수강산이라 불리는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살아온 우리 선조들은 물에 대한 애정과 감별법은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 다양하고 섬세하다.

물의 맛과 빛깔, 맑기와 무게 등으로 구분하여 밥 짓는데, 차 끓이는데, 약 달이는데, 난 키우는데 등 용도에 따라서 골라 사용하였다. 율곡선생은 물맛을 보고 무거운 물과 가벼운 물을 가려서, 가벼운 물은 덕심(德心)을 해친다고 하여 무거운 물만 골라 마셨다고 한다. 또한 물에는 둥근 것과 모난 것이 있다면서, 둥근 물은 술 담그는데 쓰고 모난 물은 약을 달이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법도가 있는 집에서는 장독대 이외에 땅속에다 여러 개의 독을 묻어놓고, 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각각 담아서 사용하는 물독대가 있었다. 입춘날에 받아둔 물을 입춘수(立春水)라 하여 이 물로 빚은 술을 마시고 합방을 하면 아들을 낳는다 하여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꿀보다 소중히 여겼다 한다. 새벽에 제일 먼저 길은 물을 정화수(井華水)라 하여 입 냄새를 없애고 안색을 좋게 하며, 술을 마신 후의 신열과 배탈을 낮게 하고 약을 달이는데도 많이 사용하였다. 국화로 덮인 못이나 수원지의 물을 국화수(菊花水)라 하며, 이 물은 안색을 좋게 하고 오랜 동안 마시면 늙지 않으며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였다. 정월의 빗물을 춘우수(春雨水)라 하여 이 물로 약을 달여 먹으면 기운이 솟고, 부부가 한잔씩 마시고 잠자리에 들면 반드시 잉태한다고 하였다. 가을의 이슬을 추로수(秋露水)라 하여 이 물로 엿을 고아 먹으면 백가지 병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여러 종류의 꽃에 맺힌 이슬을 털어 얼굴을 씻으면 혈색이 좋아지고 살결도 고와져서 여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거슬러 흐르는 물을 역류수(逆流水)라 하며, 가래를 많이 뱉는 노인들에게 아주 소중한 물이었다.

조선조시대에 한양의 백성들은 개천 물과 한강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였다. 풍수상 주산인 북악산을 중심으로 인왕산 줄기에서 흐르는 물을 백호수, 삼청동 뒷산에서 흐르는 물을 청룡수, 남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주작수라 하여 그 수질을 가려 사용하였다. 이를테면 장 담그는데는 청룡수, 약 달이는데는 백호수, 머리감는데는 주작수를 퍼다가 사용하였다고 한

다. 한강물도 원류인 오대산에서 흐르는 물줄기만을 일컬어 우중수라 하였는데 이 물로 약을 달이면 효험이 크고 술을 빚으면 술맛이 좋다하여 다른 곳의 물보다 세 곱절이나 비쌌다고 한다. 선비 이행(1352 ~ 1432)이라는 분은 물맛 중에 충주 달천(達川)의 물을 제일로, 오대산에서 한강으로 흐르는 우중수(牛重水)를 두 번째로, 속리산에서 흐르는 삼타수(三陀水)를 세 번째의 물맛이라고 하였다.

조상들의 물절약

조상들은 물을 아끼면 부업일을 주관하는 ‘조왕신’이 복을 주신다고 믿으면서 돈을 전혀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던 샘물까지 아껴 쓰도록 가르쳤다. 쌀 씻은 물을 모았다가 국이나 송늬를 끓여 먹기도 하고, 밥 먹은 뒤 그릇의 기름기를 제거하기도 했다. 또한 이 물을 모았다가 소나 돼지에게 주었다. 짐승이 없는 집에서는 이 물을 모아 두었다가 마당 한 구석에 토란밭을 만들어 거름으로 쓰기도 하고, 짐승이 있는 집에서 먹이로 가져가게 하였다.

‘낮 씻은 물을 너무 많이 쓰면 많이 쓴 만큼의 물을 저승에 가서 다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물을 그만큼 아껴 써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대야에 받아서 세수한 물은 그대로 버리는 일이 없고 걸레를 빨거나 요강의 세척물로 사용하는 등 반드시 재활용을 하였다.

물의 오염을 염려하는 터부(禁忌)도 다양했다. ‘넷물에 오줌을 누면 고추 끝이 부어 올라 감자고추가 된다.’ ‘사내가 해를 보고 오줌을 누거나 계집아이가 흐르는 물에 오줌을 누면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했다. 또 시집가는 딸에게 ‘아기들 기저귀는 넷물에 가서 빨지 않는 법’이라고 가르쳤다. 반드시 샘물을 퍼다가 빨고, 빨고 난 물은 텃밭이나 두엄터에 버리게끔 했다. 배설물에 의한 수질오염에 이토록 세심한 우리 조상들이었다.

절수형 사회의 필요성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유한한 귀중한 자원의 하나이다. 최근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산업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사태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현재 세계 인구 중 40%가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 우리 나라도 갈수기에는 상습적으로 극부적인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물압박(water stress)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생활양식의 다변화, 또한 도시기능의 고도화 등에 수반하여 가정용수나 도시생활용수를 포함한 소위 생활용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앞으로도 도시화와 인구증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상수도 보급의 확대, 발 관개의 확장 및 하천유지용수의 증가로 용수수요는 꾸준하게 증가될 전망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물은 무한정 공급할 수 있다는 자원으로 인식되어 경제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증가하는 물의 수요대책으로서 새로운 수자원 개발이란 입장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는 물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댐에 의한 수자원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수요증가에 따른 신규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수의 다목적 댐이 건설될 계획이다. 그러나 대형 댐 위주의 공급방식은 댐 건설비용의 지속적인 상승, 막대한 투자비용, 건설적지의 한계, 지역간의 물 분쟁 심화, 장기간을 요하는 공사기간 등 앞으로는 곤란한 정도가 점점 증가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댐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의 사회적 비용 등으로 인한 비 경제성 및 국가 경제적 부담은 공급위주방식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은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 이상의 수요를 만들어 내고, 소비 만능풍조가 일어나 낭비적인 물 사용이 가중되어 왔다. 더욱이 한정된 수자원 개발의 시행만으로는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낭비적인 물 사용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성이 필수적이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절수설비 설치의 의무화, 중수도의 보급확대, 누수방지, 물 값의 현실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낭비적인 물 사용 의식과 습관을 변화시키고 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절수형 사회 구조로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한 방울의 물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우리의 전통 생활양식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물 절약의 생활화”가 곧 “절수형 사회”로 가는 바탕이라고 생각된다. ㉔